

신성장 · 신사업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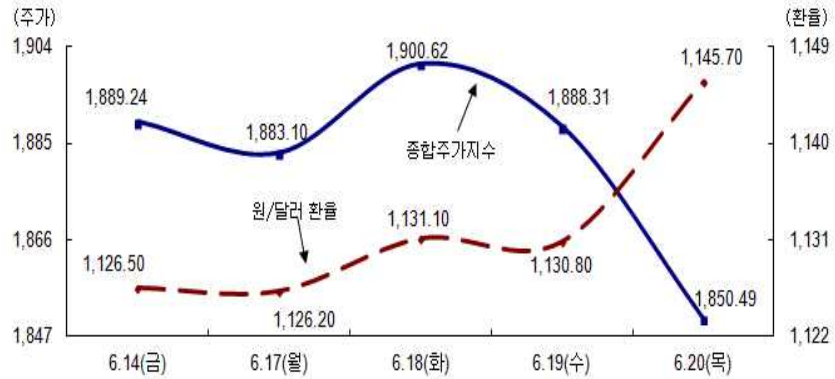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별첨>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4~6.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1
<별첨>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	18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3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임 희 정 연구위원 외 (2072-6218, limhj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 I. 2013년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

- **지표 경기 개선 속 체감 경기 악화** : 지표 경기가 2012년 3/4분기 전기대비 0% 성장 이후 2013년 1/4분기 0.8%로 개선되고 있으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3/4분기 4.6% 증가에서 2013년 1/4분기 0.3% 증가로 위축되며 체감 경기는 악화
- **수출 회복 부진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 :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수출 회복세는 미약. 하지만 수입도 감소하여 2013년 1/4분기 무역수지는 2012년 1/4분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 양상을 보임
-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 : 신규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여 실업률이 2012년 1/4분기 3.8%에서 2013년 1/4분기 3.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률은 동 기간 중 57.7%로 하락
- **저물가 기조 하에 물가 불안 심리 가중**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3.0%에 근접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 심리는 높음
- **넘쳐나는 유동성, 높은 변동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II. 2013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 : 미국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 금리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의 3단계로 진행. 하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시행. 하지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하는 에반스틀로 판단하면 2단계 금리정상화는 시기가 이르다.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달러화 강세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금리는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수출품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대미 수출은 호조 기대.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 가격 하락은 수입 원가 절감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 작용

■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아베게돈) 우려** : 일본 경제는 2%대 중후반대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나, 금리 상승, 양적완화의 부작용, 실물경기 회복 지연, 아베내각 추동력 약화 등 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우려도 있음. 이로 인해 일본 경기 재침체시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한국 수출 경기는 물론 내수 부진세가 지속되는 등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 우려

■ **글로벌 수출 시장 급랭(유럽 경기 추가 침체·중국 경착륙)** : 유럽 경제는 재정 긴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침체되는 등 실물 부문의 추가 침체가 지속될 전망. 이로 인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기 악화, 지방부채 부실화 우려 상존으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됨. 중국 경기 부진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됨

■ **가계부채 버블 붕괴** : 가계부채는 하반기에 통화당국의 통화 완화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큼. 가계 부채 버블 붕괴는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

■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인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 종료되면, 부동산시장에서 '주택거래절벽'이 또 다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됨.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으로 건설산업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고용과 서민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되어,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 III. 정책 과제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으로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리스크 요인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이다.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리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해야 한다.** 추경 예산 및 재정의 조기 집행 기조를 유지하여 내수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고려하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13년 4.1 종합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더하여 기본세율의 추가 인하 등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대상에 '생애최초 구입'을 포함한 실수요자로 확대하고 면제 시기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으로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와 하반기 리스크 점검

I. 2013년 상반기 경제의 5대 패러독스

○ (성장) 지표경기 개선 속 체감 경기 악화

- 지표 경기를 전기대비 성장률로 보면 2012년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임
  -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2년 3/4분기 전기대비 0%를 기록한 후 4/4분기 0.3%, 2012년 1/4분기 0.8%로 개선되고 있음
  -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5%였고 2013년 1/4분기도 1.5%로 정체 상태임
- 체감 경기는 실질소득 감소, 고용 시장 부진 등으로 지표 경기 개선과 상관없이 악화되고 있음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2012년 3/4분기 4.6%, 4/4분기 3.6%, 2013년 1/4분기 0.3%로 크게 위축됨.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2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2.7%에서 2013년 1/4분기 1.5%로 하락
  - 고용시장에서는 신규 취업자수가 2013년 1~5월 중 평균 27.6만 명으로 2012년 연평균 43.7만 명을 크게 하회

○ (외수) 수출 회복 부진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확대

- 세계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저조하여 수출 회복이 부진하였으나, 수입도 감소하여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 2013년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수출은 예상보다 회복세가 미약
  - 수출증가율이 2012년 -1.3%를 기록했고, 2013년 1~5월 기간 중 0.9%로 수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양상
  - 수입증가율은 2012년 연간 -0.9%를 기록했고,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2013년 1~5월까지 -2.8%로 부진
  - 그러나 무역수지는 수출의 회복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입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커서 2013년 1/4분기 57.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년동기대비 45.4억달러 흑자 증가
- 최근 5월 수출증가율은 3.2%, 수입증가율은 -4.6%를 기록하여 5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축소형 무역수지 흑자” 양상이 지속

○ (고용) 실업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

- 신규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여 실업률 하락세
  -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신규 취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은 2012년 1/4분기 3.8%에서 2013년 1/4분기 3.6%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실업자는 2012년 1/4분기 94.7만명에서 2013년 1/4분기 90.7만명으로 축소되어, 2008년 이후 1/4분기 실업자 수 중 최저수준 기록
-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도 하락
  - 가사·쉬었음·연로 등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2012년 1/4분기 1,649.5만명에서 2013년 1/4분기 1,683.1만명으로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도 2012년 1/4분기 60.1%에서 2013년 1/4분기 59.9%로 하락
  - 취업자 증가율보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아 고용률이 2012년 1/4분기 57.8%에서 2013년 1/4분기 57.7%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
  - 특히, 노동시장적 사유로 인해 남성의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 (물가) 저물가 기조 하에 물가 불안 심리 가중

- 소비자물가는 상승률이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
  - 소비자물가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며 2013년 1월~5월 평균 1.3%로 1%대에 머뭇
  -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013년 1~5월 평균 1.4%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 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불안 심리로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연평균 3.0%에 근접하는 수준을 기록
  - 소비자물가가 5월에 1.0%까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은 2.9%로 소비자물가보다 1.9%p 높음
  -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향후 기업 등 생산자들이 단기간에 가격조정을 할 경우 물가가 불안정해질 가능성

○ (금융) 국내 금융시장 넘쳐나는 유동성, 높은 변동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지속
  - 국내 M2 증가율은 한국은행이 2010년 7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1년 7월 이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현재 전년동월대비 5%대 이상 증가
  - 시중유동성을 나타내는 마샬K1)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305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며 2013년 1/4분기 현재 1.425를 기록
-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
  -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월중 1,054.7원에서 4월 8일 1,140.1원 까지 상승, 이후 환율은 5월중 1,086.5원 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달러화 강세 기조 등으로 6월 현재 1,145.7원으로 상승
  -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1월중 86.7엔에서 5월 23일 103.2엔 까지 상승했으나,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으로 6월 현재 96.6엔으로 하락
  -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로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 코스피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며 6월 현재 1,850.5p를 기록

< 국내 경제 부문별 실적 추이 >

(단위 : %, 억달러)

구 분	2011	2012					연간	2013		
		1/4	2/4	3/4	4/4	1/4		4월	5월	
경제성장률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	-	
내수	민간소비	2.4	1.3 (0.8)	1.0 (0.4)	1.7 (0.7)	2.7 (0.8)	1.7	1.5 (-0.4)	-	-
	건설투자	-4.7	-0.4 (-1.5)	-3.1 (-1.3)	-0.3 (0.7)	-4.2 (-1.2)	-2.2	2.4 (4.1)	-	-
	설비투자	3.6	8.8 (10.4)	-3.5 (-7.8)	-6.9 (-5.2)	-5.2 (-1.8)	-1.9	-11.9 (2.6)	-	-
외수	경상수지	261	25.6	111.8	145.5	148.3	431.0	99.7	39.7	-
	무역수지	308	11.8	97.0	74.7	99.4	282.6	57.2	24.0	59.2
	수 출	19.0	1348.5	1401.3	1331.3	1397.7	5478.7	1354.0	461.9	483.6
	증가율	19.0	2.9	-1.7	-5.8	-0.4	-1.3	0.4	0.2	3.2
	수 입	23.3	1336.7	1304.3	1256.5	1298.3	5195.8	1296.8	437.9	424.5
증가율	23.3	7.8	-2.9	-6.9	-1.1	-0.9	-3.9	-0.4	-4.6	
물가 고용	소비자물가	4.0	3.0	2.4	1.6	1.7	2.2	1.4	1.2	1.0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2	3.0
	청년	7.6	8.2	8.1	6.8	7.0	7.5	8.4	8.4	7.4

주 :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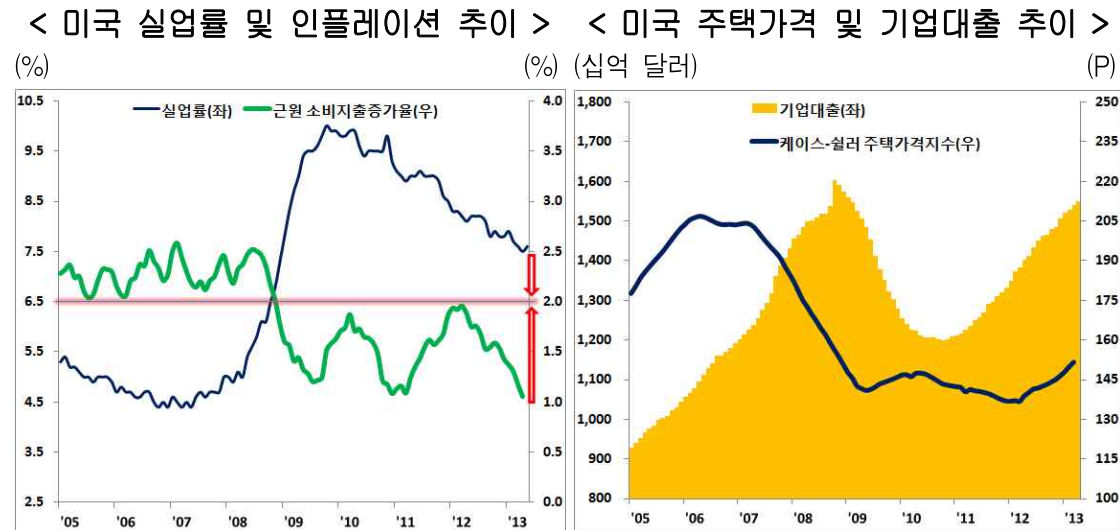
1) 마샬K=M2/명목GDP.



## II. 2013년 하반기 리스크 요인 점검

### 1. 미국 출구전략 시행 본격화

- (현황)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가시화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출구전략의 첫 단계인 양적완화 축소는 하반기에 시행
  - 실업률과 장기인플레이션 지표(에반스룰<sup>2)</sup>)로 판단하면, 2단계 출구전략인 금리정상화는 시기가 이룸
    - 2013년 5월 실업률은 2010년 이후 하락하여 에반스룰에서 정하는 타겟실업률인 6.5%보다 1%p 정도 높은 7.6%를 기록
    - 장기 인플레이션이 1%대의 낮은 수준으로 에반스룰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
  - 그러나, 주택경기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여 양적완화 지속의 명분이 없으며,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레버리징에 적합한 정책 수행 시점 도래
    -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여 2013년 3월 현재 151.71p를 기록
    - 그 동안 양적완화로 인해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의 자금 흡수(역채널)가 지속되었다면, 이제는 민간에서의 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은행의 자금 부족을 만회하는 연준의 자금 지급 과정이 필요(순채널)



자료 : 미국노동부, 미국상무부.

자료 : S&P,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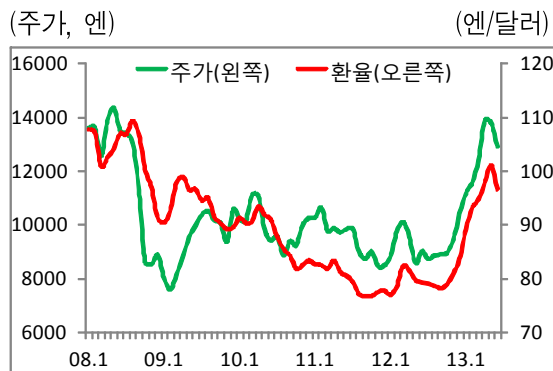
- 2) '에반스룰(Evans Rule)'은 기존의 어느 시점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시점 기준 방식'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금리 결정에 연동시키는 '한계점 기준 방식'으로 바꾼 미국 연준의 새로운 기준금리 결정 방식을 일컫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에반스룰이라 부름

- (전망) 출구전략의 초기 단계인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될 예정이나, 금리정상화와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은 고용 시장과 물가 상승 압력 여부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
  - 출구전략 시행 예상 시나리오 :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금리정상화,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등의 3단계로 진행될 전망
    - 양적완화 축소 : 국채와 기관채, 기관의 MBS 등 보유한 유가증권의 원리금 채투자를 중단하거나 장기채권 매입을 조절하는 양적완화축소 전망
    - 금리정상화 : 에반스들이 충족되면(실업률: 6.5%, 장기인플레이션 2.0%),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을 정상화할 것임
    - 주택담보부증권 매각 : 주택경기 회복이 보다 가시화되면 장기 및 단기 주택담보부증권의 매각 착수가 예상됨
  
- (파급 영향)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초래되어 한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만, 대미 수출은 호조를 보일 전망
  -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여 한국 주식가격은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 현상이 나타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 금리는 상승할 전망
    -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및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복지예산 이자 부담도 가중시킴
  
  - 자본재 수입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만, 국내수출품 가격경쟁력 향상 등의 요인으로 대미 수출은 호조를 보일 전망
    - 국내 외국인투자자본 회수가 이어지면서 증시 하락, 채권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우려
    -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지면서 미국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
    - 한편,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원자재, 곡물 등의 상품 가격 하락은 수입 원가 절감 등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 2.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아베게돈)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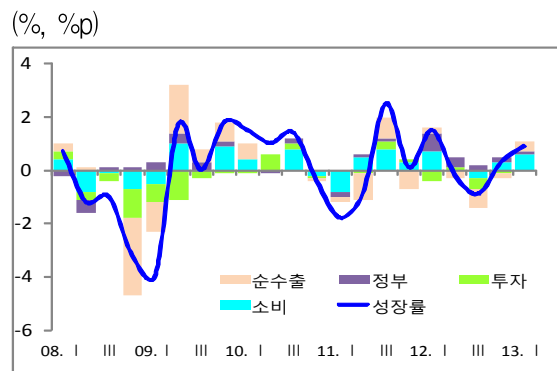
- (현황) 최근 일본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상승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세 지속
  - 지난 2012년 12월 26일 아베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는 강력한 경기 회복 대책인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환율 급등, 주가 상승
    - 엔/달러 환율은 아베내각 출범 시 85.15엔/달러에서 지난 2013년 6월 7일 94.99엔/달러로 약 12% 상승, 닛케이주가는 같은 기간 1만 230엔에서 지난 2013년 6월 7일 1만 3,033엔으로 약 27% 상승
  - 내수주도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일본 경제는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각각 0.3%p, 0.9%p로 나타나는 등 민간 소비 중심의 내수 부문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2년 4/4분기 0.3%, 2013년 1/4분기 1.0%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록

< 일본의 주가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日本銀行, 日本經濟新聞.

< 일본의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日本內各府

- (전망) 2013년 일본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금리 상승, 양적완화의 부작용 심화, 실물경기 회복 지연 등의 리스크 가지화시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우려도 있음
  - 2013년 일본 경제는 명목 2%대 물가 상승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2%대 중후반으로 성장률이 회복될 전망
    - 일본의 6개 민간 전망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7%로 나타남
    - 엔/달러 환율 전망치 평균은 102.0엔/달러까지 상승할 우려3)

- 금리 상승, 재정파이낸스 우려 등 부작용으로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 상존
  - 장기금리 상승 :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13년 4월 4일 0.442%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6월 7일에는 0.831%로 약 0.4%p 상승
  - 양적 완화의 한계 우려 : 2013년 GDP 대비 국가채무가 이미 약 224%에 도달 국채금리 상승 시 이자 비용 급증은 물론 장기금리 상승 방지를 위한 무제한 양적완화 확대도 곤란한 상황4)
  -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지속 :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경기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높은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아베 내각 출범 이후 2013년 1~4월 누적 기준 28.7조 엔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실물경기 회복세 지연 : 대표적인 실물경기 지표인 광공업 생산지수와 소비자태도지수가 각각 기준 100, 50을 지속 하회함에 따라 경기동행지수는 물론 경기선행지수가 기준 100을 하회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전망
  - 아베내각 추동력 약화 : 아베내각 지지율은 한때 60% 중반에서 70% 초반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60% 중후반에서 50% 후반으로 하락하면서 아베노믹스 추동력이 약화되고 있음

○ (과급 영향)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끝날 경우, 국내 경제는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실물경기 동반 둔화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큼

- 한일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한 일본 금융시장 변동이 국내 금융시장 변동을 야기
  - 한국의 對日 무역 규모가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9%에 달하며, 한일 양국 간 국제투자 규모는 총 1,01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국제투자 1조 5,614억 달러의 약 6.5%에 해당5)
- 일본 경기 재침체 시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로 국내 수출 경기는 물론 내수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는 등 내외수 동반 침체로 경기 급락 우려
  - 세계 GDP 대비 일본 GDP 비중은 8.3%로, 일본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내 금융시장 혼란과 수출 경기 부진은 소비 심리 악화로 내수 경기 둔화를 유발

3) 日本總合研究所, みずほ總合研究所, 三菱總合研究所, 大和總研,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農林中金總合研究所.

4) 연간 양적완화 규모 60~70조 엔은 일본정부의 연간 공채 발행액 40조 엔에 비해 20~30조 엔 정도 크나, 월 매매 규모 180조엔 내외의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양적완화 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5) 한국무역협회 자료, 한국은행, 2012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013년 4월 23일 이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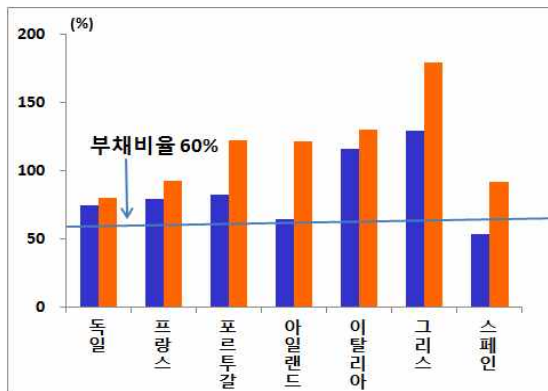
### 3. 글로벌 수출 시장 급랭(유럽 경기 추가 침체 · 중국 경착륙)

#### 1) 유럽 경기 추가 침체 우려

○ (현황) 유럽(유로존) 주요국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재정긴축 정책으로 재정적자는 축소되어 재정위기가 진정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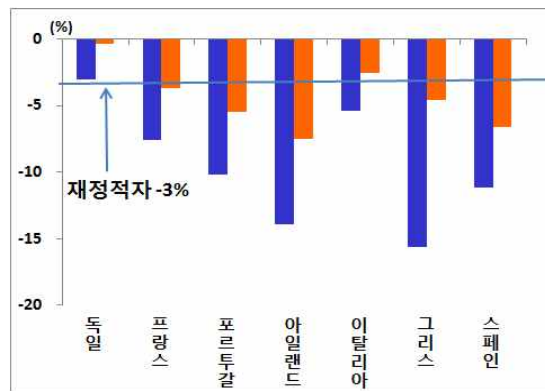
-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국가 부채비율이 100%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재정협약에 기초한 재정긴축 정책으로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축소되어 재정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 독일, 프랑스 및 PIIGS 국가들의 2009년 국가 부채비율은 86%에서 2012년 117%로 증가
- 반면 재정적자비율은 -10%에서 -4% 수준으로 하락하여 신재정협약 기준인 -3%에 근접

<유로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 추이>



자료 : IMF.

<유로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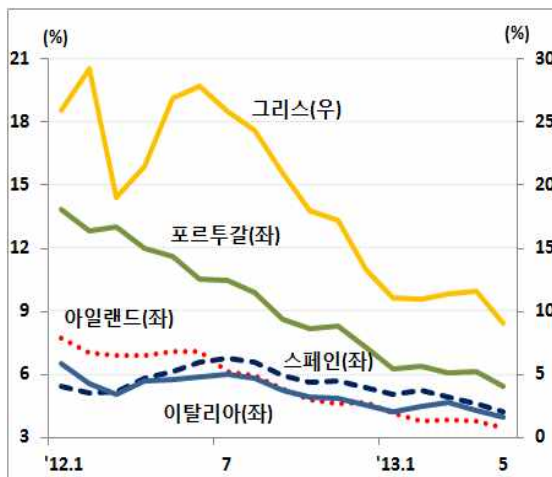
자료 : IMF.

○ (전망) 3분기에 대규모 만기채권상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 낮음. 다만, 긴축에 따른 실업률이 상승하고 성장률이 침체되는 등 실물 부문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

- 3분기 채권부담 고비 : PIIGS국가의 만기채권은 특히 이탈리아의 상환물량이 집중된 3분기가 고비가 될 전망
- 이탈리아의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상환부담은 3분기에 1,288억유로(이자포함)로 가장 집중되어 있으며 PIIGS 5개국 전체는 2,025억 유로에 달함
- 3분기에 국채발행 등을 통해 만기 국채상환을 무사히 넘길 경우 이후에 돌아오는 만기상환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장기 국채 금리 하락 : PIIGS 국가들의 장기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추세에 있어 국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재정위기 진정 가능성이 높음
  - 그리스의 국채금리(10년만기)는 한때 30%에 육박하였으나 2013년 5월 현재 10%이하로 하락. 포르투갈도 국채금리가 14%에 달했으나 5월 현재 5.5% 수준으로 하락
  -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도 2013년 들어 모두 5%대 미만으로 하락
  - 국채금리의 하락은 국채이자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국채 발행 시 물량해소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 실물 위기 지속 : 유로존 실업률은 급등세를 지속하고 GDP 성장률은 침체되는 등 실물부문의 위기는 지속될 전망
  - 유로존 실업률은 2010년 1/4분기 10.1%에서 2년만인 2012년 1/4분기에 12.1%로 급등했고 최근 2013년 4월 실업률은 12.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13년 1/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1%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4/4분기 이후 최저치임

<PIIGS 국가 10년만기 국채금리 추이>



자료 : ECB.

<유로존 분기별 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 Eurostat.

- (과급 영향) 유로존 재정위기의 완화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겠으나, 실물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수출 경기 회복은 지연될 전망
- 재정위기가 점차 완화되면서 유로존 위기에 따른 환율과 주가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 전망

- 2012년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유럽계 자금은 전체 투자금액 중 27.7%(2,615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유로존 실물경기 침체로 유럽 수요 및 대외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국내 수출 경기의 회복은 지연될 전망
- 2012년 대유럽 수출은 493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5%에서 8.8%로 큰 폭으로 감소
- 또한 중국의 유럽 수출 부진에 따른 대중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수출 경기 회복 지연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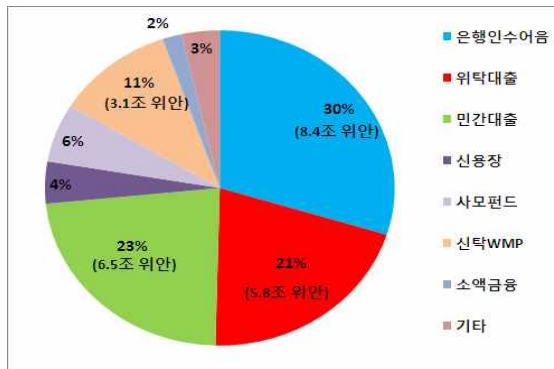
## 2) 중국 경착륙 우려

- (현황) 최근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약화에 따른 내·외수 동반 회복 지연으로 4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고 있음
- (리스크 확대 우려 상존) 중국 경제는 중소기업 경기 악화로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그림자 금융 급증뿐 아니라, 지방부채 부실화 우려 상존으로 경착륙 우려 확대
  -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sup>6)</sup> 확대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 확산
    - 2012년 3/4분기 기준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는 약 28조 위안으로 전체 GDP의 54%에 이르고 있음
  - 지방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지방 융자플랫폼<sup>7)</sup>을 통해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투자 손실이 부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2012년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7.3%인 3.8조 위안이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등은 약 12조 위안으로 추정

6)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란 은행권 밖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제공, 은행과 같은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신용공여를 말함.

7) 지방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 Loan Platform)이란 인프라 건설 등 공공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정부가 설립한 금융회사를 말함.

<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 >



자료 : 中國人民銀行, 中國信託業協會.  
주 : 2012년 3/4분기 잔액기준.

< 중국의 지방 부채 >

구분	부채 규모		지역수
	규모	GDP 대비 비중	
2010	3.4조 위안	8.5%	36개 지방정부
2012	3.8조 위안	7.3%	36개 지방정부

자료 : 中國審計署.  
주 : 피치는 2012년말 중국 지방부채 규모를 12.9조 위안으로 추정.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올해 중국 경제가 성장률 7%대로 급락하여 경착륙 한다면 국내경제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

- 최근 IMF, OECD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경제성장률 회복 지연을 전망함
  - IMF, World Bank는 201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8.0%, 8.5%를 각각 7.75%, 7.8%로 하향 조정하며 중국경제의 회복 지연 전망
- 한편, 지난 4월 피치(Fitch), 무디스(Moody's)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중국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며 향후 중국경제 리스크 확대를 우려
  - 피치는 지난 4월 9일, 중국의 위안화 표시 장기 채권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더욱이 무디스도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종전의 Aa3를 그대로 유지하나,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은 0.4%p 하락 할 것으로 추정
  -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은 0.4%p 하락, 국내 수출 증가율도 1.7%p 둔화될 것으로 추정

< 중국 GDP 성장률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분	중국 GDP 성장률 1% 하락 시
국내 경제성장률	0.4%p 둔화
국내 수출증가율	1.7%p 둔화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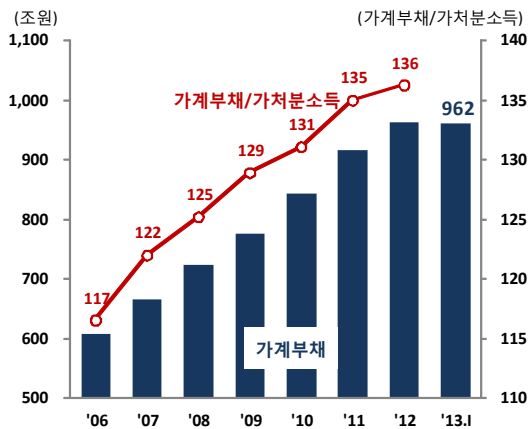


#### 4. 가계부채의 버블 붕괴

○ (현황)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질적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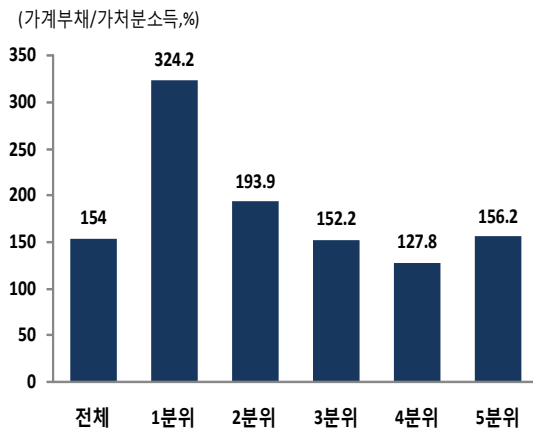
-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 가계부채는 2012년까지 급증하였으나, 최근 소폭 감소하여 2013년 1/4분기 현재 962조원을 기록
  -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136%를 유지(미국 111%, 영국 141%, 일본 131%)
  -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의 건전성 악화, 우리나라는 위기 당시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7%에 육박
- 비은행권 대출 증가,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 저하,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등 질적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
  -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2007년~2012년)이 11.8%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인 5.2%를 크게 상회
  - 1분위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은 324.2%로 전체평균인 154.0%에 비해 매우 높아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
  - 2012년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신용대출 연체율은 각각 0.74%, 1.37%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13%p, 0.32%p 상승<sup>8)</sup>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금융조사는 통계청이 가구의 자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샘플 조사로서 한국은행의 가계신용과 차이.

8)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13. 4)

○ (전망) 하반기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 하반기 가계부채는 통화당국의 통화 완화 정책,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5월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문의 구조조정 지연과 가계부채 증가 유인으로 작용
  - 가계대출의 전월대비 증감은 1월 -0.8조원, 2월 1.3조원, 3월 1.5조원을 기록 하였으나, 4월에는 4.1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어 4.2조원 증가
-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 증가, 낮은 소득 증가율, 고용의 질적 악화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며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
  - 2012년말 기준 저신용자<sup>9)</sup> 대출 가운데 비은행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비중은 65.5%, 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
  - 경기 회복 지연으로 1/4분기 실질 가계 소득증가율은 0.3%에 불과, 청년 실업률은 7%를 상회, 고령층의 저임금 일자리 취업 증가 등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 (파급 영향) 가계부채 부담 가중은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신용불량자 양산, 비은행권의 부실화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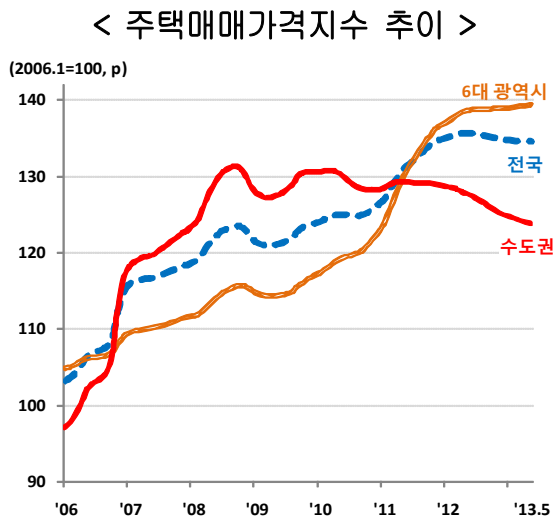
- 높은 가계부채 부담은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
  -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가처분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소비위축을 초래
  - 회귀분석 결과 가계부채/소득 비율이 1% 상승하면 민간소비는 약 0.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sup>10)</sup>
-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지속되어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
  - 저소득층은 높은 연체 비율과 낮은 채무상환능력으로 부실가능 가구수가 많아 향후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사회문제화 가능성
  - 비은행 금융권은 연체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위기 발생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

9) 신용등급 10등급 중 7~10등급,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13. 4)

10)  $\ln(\text{민간소비}) = \alpha + \beta_1 \ln(\text{가계부채}) + \beta_2 \ln(\text{가계부채/소득}) + \beta_3 \ln(\text{주택가격}) + \beta_4 \text{CD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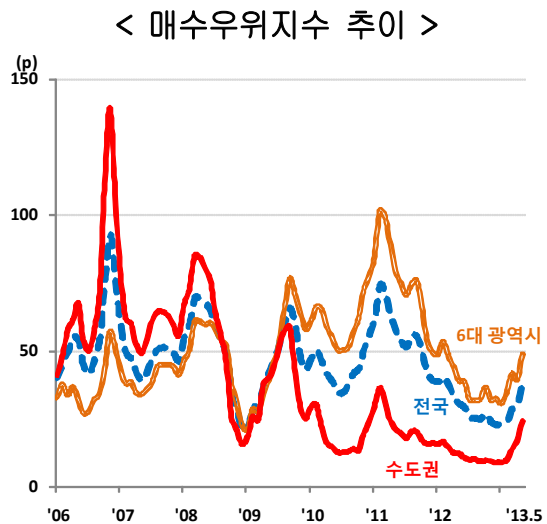
## 5.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

- (현황)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 지방은 상승세 둔화
  - 부동산 시장은 경기회복 지연, 매매 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진 지속
    -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 시장 대책을 입안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 2012년 연말부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수요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임
  - 2013년 1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소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도세가 강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함
    - 4.1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주택매수세가 소폭으로 증가



자료 : 국민은행 자료이용 재작성.

주 : 6대 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국민은행 자료이용 재작성.

주 : 매수우위지수 = 100 + 매수세우위 - 매도세우위

- (전망) 금리인하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하반기 부동산 경기 추가 하락 우려

-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말 종료된 이후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거래 절벽’이 또다시 나타날 것으로 우려
  - 6월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종료될 것을 감안하여 하반기에 발생할 ‘미래수요’가 상반기로 이전되는 한시적 효과에 불과
  
- 4.1 부동산 정상화 방안은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양도세 증과 및 다주택자 규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요인이 정상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 제기
  - 2010년 9월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고, 2011년 5월 19일 취득세 50% 인하 조치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2011년 주택 매매거래가 크게 증가했음
  - 4.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효과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인 주택경기 회복에는 제한적임
  
- (파급 영향) 부동산 경기회복이 부진할 경우 건설산업과 관련된 자영업 경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서민 소득과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가 축소되어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임
  - 건설업은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생산 및 고용의 둔화가 우려
    - 하반기 주택거래실적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하반기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주택경기가 부진하면, 건설업 분야의 고용이 크게 감소되고 내수 경기 회복도 지연될 전망
  
  - 수도권 미분양 주택 미해소,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잉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주택가격 정상화가 지연될 전망
    -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지속되어온 배경에는 주택건설 초과 공급, 보금자리 주택 공급 과잉, 급증한 미분양 주택 미해소 등이 있음

### Ⅲ. 대응 과제

- 2013년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적으로 5가지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 리스크 요인(교란 요인)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글로벌 시장 급랭 우려, 가계부채 버블 붕괴, 부동산 시장 회복 부진 등임
-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기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적 대응책이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등에 대한 대책 마련
    -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고,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 유럽 경기 추가 침체와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 추경 예산 및 재정의 조기 집행 기초를 유지하여 내수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
    -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여야 함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급랭을 방지
    - 저금리 기조 하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고려하되, 가계부채 구조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이 필요
    -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국민행복기금 활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해야 할 것임

-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제도를 설계
  
-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대한 대응 필요
  - 2013년 4.1 종합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더하여 기본세율의 추가 인하 등 고려
  -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대상에 '생애최초구입'을 포함한 실수요자로 확대하고, 면제 시기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해야 할 것임
  -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용도 개발과 적정가 분양 등을 통해 민간 건설 투자를 유도

<별첨> 2013년 하반기 경제 전망

1. 2013년 하반기 대외 여건 변화

1) 세계 경기 : 선진국 국가별 회복 경로 차이와 저조한 신흥개도국 성장

○ (경기 현황) 2013년 상반기에 선진국 경제 회복은 태평양 연안 지역과 구대륙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신흥개도국은 성장세가 둔화됨

- 상반기,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일본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구대륙의 유럽은 침체가 지속되었으며,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는 저조함
- 미국 : 시퀘스터 발동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회복에 의해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 2.4%로 2012년 4/4분기 0.4%에 비해 상승
- 일본 :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면서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임
- 유럽 : 유럽(유로)은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1%를 기록하여 경기 침체가 지속
- 중국 : 중국은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6%로 2012년 1/4분기 20%에서 하락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정이 진행중임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추세
- 신흥개도국 : 선진국 경제 침체와 낮은 원자재 가격 등의 요인으로 신흥국 수출 및 교역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신흥국 경제 회복은 둔화

<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구분	2011	2012					연간	2013
		1/4	2/4	3/4	4/4	1/4		
세계	4.0	-	-	-	-	3.2	-	
선진국	1.6	-	-	-	-	1.2	-	
미국	1.8	2.0	1.3	3.1	0.4	2.0	2.4	
일본	-0.6	1.2	-0.2	-0.9	0.3	2.0	1.0	
유럽	1.5	-0.1	-0.5	-0.7	-1.0	-0.6	-1.1	
신흥개도국	6.4	-	-	-	-	5.1	-	
중국	9.3	1.6	1.9	2.1	2.0	7.8	1.6	
인도	7.7	1.2	0.5	0.6	1.2	4.0	0.5	
브라질	9.9	0.1	0.3	0.3	0.6	6.3	0.6	

자료 : 연간(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April).  
 분기(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럽: Eurostat, 신흥개도국: OECD).  
 주 : 분기성장률(미국: 전기대비연율, 일본: 전기대비, 유럽: 전년동기대비, 신흥개도국: 전기대비).

○ (경기 전망) 하반기에 선진국은 국가별로 경기 회복 방향과 속도가 다르고, 신흥국의 경제는 성장세를 되찾겠지만 이전만큼 빠르지는 않을 전망

-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1.2%로 경기 회복세가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흥개도국도 5.3%로 느린 성장세 전망
- 미국 : 2013년 1%대 후반의 성장률을 보이며 선진국 중 가장 견조한 회복세 전망
- 일본 : 1.6%의 상승세가 전망되지만, 아베노믹스 실패에 따른 하방 리스크 잔존
- 유럽 : 긴축에서 부양으로의 정책 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경기 침체의 바닥을 치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0.6%~-0.3%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중국 : 부의 불균형 완화와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 성장 패러다임 변화 등 질적 측면의 경제구조조정 추진 등의 요인으로 8% 내외의 성장세 전망
- 신흥개도국 :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만큼 빠르지 않고 글로벌 유동성의 선진국 회귀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신흥국 경기 회복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

< IMF와 OECD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시점별 전망치 >

(%)

구분	2013년(E)				
	OECD			IMF	
	'12. 5	'12. 11	'13. 5	'13. 1	'13. 4
세계	4.2	3.4	3.1	3.5	3.3
선진국	-	-	-	1.4	1.2
미국	2.6	2.0	1.9	2.0	1.9
일본	1.5	0.7	1.6	1.2	1.6
유럽	0.9	-0.1	-0.6	-0.2	-0.3
신흥개도국	-	-	-	5.5	5.3
중국	9.3	8.5	7.8	8.2	8.0
인도	7.7	5.9	5.3	5.9	5.7
아세안-5	-	-	-	5.5	5.9
중동	-	-	-	3.4	3.1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April; OECD, 「Economic Outlook」, 2013 May.  
 주 :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 (세계 무역) 2013년 상반기에는 유럽의 경제 침체 지속으로 세계 무역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제 회복에 의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계 무역 증가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
  - **현황** : 2013년 상반기에는 유럽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세계 수입 수요와 신흥개도국의 무역 증가율이 상쇄
    - 2013년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 침체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였음
    -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과 브라질 등의 경기 회복 지연이 BRICS를 제외한 신흥국 교역 증가율을 상쇄하여 세계 무역은 저조하였음
  - **전망** : 2013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신흥국의 대미 수출 증가로 인해 세계 무역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하방 리스크도 잔존
    - 세계 무역 증가율은 2012년의 2.5%에서 2013년에는 3.6%로 상승할 전망
    - 선진국 중 가장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는 2013년 하반기 세계 무역 증가율 상승의 가장 큰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실물경제 위기 해소 지연과 선진국의 긴축 재정 이슈 등은 세계 교역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세계 수출입 전망 >

구분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E)</sup>
세계 무역 증가율		6.0	2.5	3.6	5.3
수출	선진국	4.7	1.0	2.2	4.1
	신흥개도국	8.6	4.9	6.2	7.3
수입	선진국	5.6	1.9	2.8	4.6
	신흥개도국	6.4	3.7	4.8	6.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April.  
 주 : (E)는 전망치.

## 2) 국제 원자재 :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가격 하락 추세

- (현황)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요 부진과 향후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잔존으로 하락세
  - 원유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 증가, 이로 인한 수급 상황 완화와 세계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임
    - Dubai유는 2013년 5월 배럴당 평균 100.3 달러에서 6월 99.4 달러로 하락
  - 원자재 :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수급 완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 가운데, 글로벌 자금 사정 개선으로 인해 변동성 또한 완화됨
    - 국제 금 가격은 2012년 하반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했으나, 2013년 상반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달러 강세 등의 요인으로 하락
    - 구리 가격은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산업 생산 부진 등의 요인으로 혼조된 양상을 보이며 하락
- (전망) 오래동안 누적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원자재의 수요부진이 지속되어 2013년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13년 원유 및 금, 구리 등의 원자재가격은 전년대비 2%~14% 하락할 전망
  - 미국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달러 강세와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인해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

### < 유가 및 원자재가 현황과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달러/온스, 달러/톤)

구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3/4 <sup>(E)</sup>	4/4 <sup>(E)</sup>	연간 <sup>(E)</sup>
Dubai	106.0	116.4	106.2	106.1	107.6	109.0	108.1	100.9	96.3	92.4	99.1
WTI	95.1	103.1	93.3	92.2	88.2	94.2	94.3	94.0	94.3	91.8	93.6
금	1,571	1,691	1,612	1,653	1,718	1,668	1,631	1,433	1,500	1,512	1,521
구리	8,829	8,315	7,829	8,247	7,921	8,078	7,964	7,227	7,758	7,750	7,680

자료 : 한국석유공사,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 국제금융센터, Bloomberg.

주 : 1) 기간 중 평균치를 나타냄. 2013년 2/4분기는 4월 1일~6월 20일까지의 평균치.

2) Dubai 및 WTI 전망치: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의 전망자료(2013년 6월 11일 기준).

3) 금 및 구리 전망치: Bloomberg의 12개 투자은행의 전망자료(2013년 6월 12일 기준).

### 3) 주요국 환율 : 달러 강세 기조 속 변동성 확대

- 2013년 상반기에 세계 경기 회복의 지체와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 유럽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달러화 가치 상승
  - 달러인덱스는 2013년 1월 2일 73.2에서 6월 12일 현재 75.8로 상승하였음
- 2013년 하반기 미국 경제의 회복세의 기조적인 전환과 양적완화의 축소, 유럽 경제 침체 지속에 따른 유로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자금 이동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
  - **달러화** :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빠른 회복세와 양적완화 축소 등의 요인으로 달러화는 강세 전망
    - 미국 재정적자폭 감소 등의 요인으로 달러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 **엔 화** : 아베노믹스의 한계점 노출과 일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엔저 현상은 완화되지만 여전히 약세일 것으로 전망
  - **유로화** : 장기간 긴축 재정의 여파에 따른 경제 침체 지속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잔존으로 유로 가치 약세는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
  - **위안화** : 가격 경쟁력의 점진적 상실과 해외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해외 수요 부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큰 폭의 평가 절상 가능성은 희박

#### < 주요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와 전망 >

(단위 : 엔, 달러, 위안)

구분	2012년					2013년(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엔/달러	82.4	79.4	77.6	85.9	79.8	94.0	96.6	103.6	104.8	99.7
달러/유로	1.33	1.24	1.29	1.32	1.29	1.28	1.33	1.28	1.26	1.29
위안화/달러	6.31	6.36	6.30	6.23	6.31	6.21	6.13	6.16	6.13	6.16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주 : 1) 2013년 1/4분기는 3월 29일, 2/4분기는 6월 20일 실적치.
- 2) 2013년 3/4분기와 4/4분기는 2013년 6월 12일 기준 3개월후 및 4개월후 전망치.  
(14개 주요 투자은행들의 2013년 환율 전망 평균치).
- 3) 분기별 자료(말일자료), 연간자료(각분기별 환율의 평균치).

## 2. 2013년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

### 1) 경기 개관 :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

#### ○ (현황) 상반기 국내 경기는 내외수 부진으로 회복 미약

- 한국 경제는 2012년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6%에서 2013년 1/4분기 1.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2년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6%에 진입한 4/4분기 1.5%, 2013년 1/4분기에도 1.5%로 1%대 성장에 머뭄
- 2012년 3/4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0.0%로 최근 8분기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2011년 2/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8%를 기록한 후 8분기 연속 1% 미만의 전기대비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음

#### ○ (전망)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유지, 기저 효과에 의한 내수의 상대적 호전 등으로 상반기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전망

- 2013년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3%로 상반기 추정치인 1.8%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으로는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2011년					2012년					2013년(E)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반	하반	연간
4.3 (1.3)	3.5 (0.8)	3.6 (0.8)	3.4 (0.4)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1.8	3.3	2.6

자료 : 한국은행.

주 : 1) ( ) 안은 전기대비 성장률 임.

2)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2) 소비 : 미약한 회복세

- (현황) 민간소비는 2013년 상반기에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미흡 등으로 다소 부진
  - 2013년 상반기에 고용 부진, 국민 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이 1% 미만에 머물면서 민간소비가 2013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1.5% 기록
    - 소비자물가는 2013년 1~5월까지 평균 1.3% 상승률 기록
    - 신규 취업자수는 2013년 1~5월 중 평균 27.6만 명 증가로 2012년 연평균 43.7만 명 증가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3년 1/4분기 0.3%로 2012년 3/4분기 4.6% 이후 증가율 폭이 급감

< 민간소비 관련 변수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민간소비 증가율(%)	2.4	1.3	1.0	1.7	2.7	1.7	1.5	-	-
소매판매 증가율(%)	4.5	2.8	1.4	2.6	2.5	2.3	0.1	2.2	-
실질소득 증가율(%)	1.7	3.8	3.7	4.6	3.6	3.8	0.3	-	-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2	1.0
취업자 증가수(만명)	41.5	46.7	43.0	50.6	34.2	43.7	25.7	34.5	26.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가계신용증가율은 말잔 기준, 연간/분기 소비심리지수는 말월 기준.

- (전망) 민간소비는 하반기에 고용 시장 개선, 자산 효과 등으로 하반기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은 2%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
  - 고용 시장 개선 : 실업률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개선되어 3%대 초반을 기록하여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자산 효과 : 4.1 부동산 대책으로 2013년 1/4분기 가장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한 자산 효과는 소비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소비 심리 : 소비 심리가 개선되어 국내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도 소비 증가 요인
  - 가계 부채 효과 :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나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에는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가계신용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구 분	2011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가계신용 증가율(%)	8.7	7.1	5.9	5.6	5.2	5.2	4.9	-	-
소비자심리지수(p)	100	102	101	99	99	99	104	102	10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가계신용증가율은 말잔 기준, 연간/분기 소비심리지수는 말월

- 이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 2.3%, 연간으로는 2.1%를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민간소비	2.4	1.7	1.9	2.3	2.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3) 설비투자 : 부진했던 투자, 증가세로 전환

○ (현황) 2013년 상반기 대외여건 개선 미흡과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

-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대내외 경기 불안이 지속되면서 1/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1.9%를 기록

· 통계청의 1/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10.4%) 부문이 회복세를 보인 반면, 기계류(-20.9%)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15.4%를 기록

< 설비투자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연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설비투자 (국민계정)	3.6	8.8	-3.5	-6.9	-5.2	-1.9	-11.9	-
설비투자지수	4.0	10.7	-2.7	-8.2	-6.9	-2.0	-15.4	-12.4
기계류	2.7	12.8	-2.6	-7.8	-10.3	-2.2	-20.9	-16.5
운송장비	9.8	2.0	-3.1	-10.1	7.2	-1.1	10.4	6.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전망) 하반기 대내외 경기의 회복, 수출 증가, 금리 인하 효과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연간 1.0%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경기회복과 수출 증가 : 하반기 경기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설비투자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날 전망
    - 상반기 큰 폭으로 위축되었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과 기계수주 등 투자선행지표가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저금리와 정부 정책 효과 : 저금리 기조와, 금리 인하 효과,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설비투자는 10.5% 증가하며 연간 1.0% 증가세 전망
    - 5월 금리 인하 효과로 기업의 자본채수입과 투자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며, 정부의 5.1 투자 활성화대책으로 설비투자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설비투자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3.6	-1.9	-7.8	10.5	1.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4) 건설투자 : 회복세 기대

- (현황) 건설투자 침체가 지속되다가 2013년 상반기 들어 회복
  -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 회복세
    - 건설투자는 2013년 1/4분기 2.4%를 나타내 플러스로 전환
    - 건설기성은 건축뿐만 아니라,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로 토목 공사 역시 회복되면서 2013년 1/4분기 5.2%를 기록

< 건설투자 및 건설기성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연간	2012년					연간	2013년	
		1/4	2/4	3/4	4/4	1/4		4월	
건설투자(국민계정)	-4.7	-0.4	-3.1	-0.3	-4.2	-2.2	2.4	-	
건설기성	-6.4	-4.9	-9.7	-2.3	-5.6	-5.8	5.2	19.2	
공종별	토목	-5.6	-7.1	-6.1	3.2	-3.4	-3.5	5.6	12.7
	건축	-6.9	-3.2	-12.5	-6.2	-7.6	-7.6	5.0	24.3
발주자별	공공	-0.1	0.9	-5.1	-2.4	-8.7	-4.4	-5.4	7.4
	민간	-2.2	-2.1	-7.5	-0.1	1.0	-2.7	14.5	27.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공종별 건설기성은 불변 기준, 발주자별 건설기성은 경상 기준.

○ (전망) 4.1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및 SOC 투자 확대에 하반기 회복세 전망

-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공공부문 SOC 분야 건설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금리인하 및 정부의 건설정책의 효과가 2/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각각 2013년 1/4분기 -41.2%, -12.4%의 증감률을 나타내며 아직 개선세가 나타나지 못함
- 정부는 올해 안에 행복주택 1만호를 착공하고, 민자사업 규제 완화 및 부대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

< 건설 수주 및 건축허가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연간	2012년					연간	2013년	
		1/4	2/4	3/4	4/4	1/4		4월	
건설수주(경상)	6.1	33.3	-0.7	-13.6	-33.1	-8.9	-41.2	-20.6	
공공부문	-2.0	34.3	-11.2	-18.4	-17.3	-8.8	-22.6	6.8	
민간부문	12.3	40.0	4.9	-9.6	-43.1	-7.5	-46.9	-28.3	
건축허가면적	9.9	8.7	1.2	-7.3	-2.3	-0.5	-12.4	-14.2	

자료 : 통계청, 국토부.

< 건설투자 전망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4.7	-2.2	2.5	2.6	2.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5) 대외 거래 : 수출의 완만한 회복 속 경상수지 호조세

- (현황) 2013년 들어 수출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 증가세 둔화 등으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부진했던 수출은 2013년 1/4분기 0.4%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수입은 국내 소비 둔화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한편 경상수지는 국내수입 감소와 건설 및 여행 수지 등 서비스수지의 개선에 힘입어 2013년 1/4분기에만 약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

#### < 수출입 실적 및 무역, 경상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경상수지	261	25.6	111.9	145.6	148.3	431	99.7	39.7	-
무역수지	308	11.8	56.3	68.1	97.0	283	57.2	24.0	59.2
수출 (증감률)	5,552 (19.0)	1,348 (2.9)	1,401 (-1.7)	1,331 (-5.8)	1,398 (-0.4)	5,479 (-1.3)	1,354 (0.4)	461.9 (0.2)	483.6 (3.2)
수입 (증감률)	5,244 (23.3)	1,337 (7.8)	1,304 (-2.9)	1,257 (-6.9)	1,298 (-1.1)	5,196 (-0.9)	1,297 (-3.0)	437.9 (-0.4)	424.5 (-4.6)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 (전망) 미국 등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나, 엔저 현상 등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경상수지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 대외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입은 개선되나, 엔저의 여파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개선폭은 제한적
  -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 시장의 성장 지속 등으로 하반기에는 수출이 점차 회복되며 3.0%, 연간으로 2.0%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013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270억 달러, 395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이 늘어나며 흑자폭은 전년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

#### < 경상수지 및 무역 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261	137	294	431	210	185	395
무역수지	308	109	174	283	140	130	270
수출 (증감률)	5,552 (19.0)	2,750 (0.5)	2,729 (-3.1)	5,479 (-1.3)	2,778 (1.0)	2,811 (3.0)	5,589 (2.0)
수입 (증감률)	5,244 (23.3)	2,641 (2.3)	2,555 (-4.0)	5,196 (-0.9)	2,638 (-0.1)	2,681 (4.9)	5,319 (3.5)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6) 물가 : 하반기 점차 상승

- (현황) 상반기에 원자재 가격 안정, 농산물가격 하락, 무상보육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 소비자물가는 1%대 초반을 기록
  -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2013년 상반기에 안정세를 유지
    - 소비자물가는 2012년 3/4분기 1.6%, 4/4분기 1.7%에서 2013년 1/4분기 1.4%로 안정세
    - 근원물가 상승률도 2012년 3/4분기 1.4%, 4/4분기 1.3%, 2013년 1/4분기 1.4%로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

### < 주요 물가 지표 상승률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	4.0	3.0	2.4	1.6	1.7	2.2	1.4	1.3	1.2	1.0
근원	3.2	2.5	1.6	1.4	1.3	1.6	1.4	1.5	1.4	1.6
생활	4.4	2.7	2.0	1.0	1.1	1.6	0.8	0.8	0.7	0.1

자료 : 한국은행.

- (전망) 소비자물가는 내수경기 회복 지연,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하반기에도 하향 안정되겠지만,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공공요금 인상 등 일부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
  - 내수 경기 회복 지연 : 소비회복 지연 등으로 잠재GDP에 비해 성장이 미치지 못하는 디플레이션갭이 지속되어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음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원유생산 증가 등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어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 역시 낮음
  - 물가 상승 압력 존재 : 3%에 육박하는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반기에 예정된 버스, 택시,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
  - 이에 따라, 2013년 하반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 1.8%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겠지만, 연간으로는 1.6%로 정부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할 전망

###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물가	4.0	2.2	1.3	1.8	1.6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7) 고용 : 하반기 실업률 개선

- (현황) 2013년 상반기에 취업자수가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고용 부진
  -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공공부문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2013년 1/4분기에 취업자수가 전년대비 25.7만명 증가에 그침
  - 민간부문은 대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투자부진으로 고용회복 미흡
  - 가사·쉬었음·연로 등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고용률도 2012년 1/4분기 57.8%에서 2013년 1/4분기 57.7% 0.1%p 하락
  - 실업률은 2012년 1/4분기에는 3.8%를 기록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구직활동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3.6% 기록
  - 반면 청년실업률은 2012년 1/4분기 8.2%에서 2013년 1/4분기 8.4%로 상승했고, 4월에는 8.4%를 기록하며 회복 미흡

< 주요 고용 지표 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신규취업자수	467	430	506	342	437	257	345	265
공공부문	43	5	-13	-36	0	-17	12	9
민간부문	424	425	519	378	437	274	333	256
실업률	3.8	3.3	3.0	2.8	3.2	3.6	3.2	3.0
청년층	8.2	8.1	6.8	7.0	7.5	8.4	8.4	7.4
고용률	57.8	60.2	60.0	59.4	59.4	57.7	59.8	60.4
청년층	40.5	40.8	40.8	39.4	40.4	39.2	39.0	40.1

자료 : 통계청.

주 : 취업자증가수는 전년동기대비 자료임.

- (전망) 2013년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
  - 2013년 상반기 실업률은 3.4%를 기록하고, 시간제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하반기는 3.2%로 전망되며, 연간 실업률은 3.3%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
  -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친화적 제도가 이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확대 될 전망

<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실업률	3.4	3.2	3.4	3.2	3.3

자료 : 통계청.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8) 원화 환율 : 하반기 상승세

### ○ (현황) 원화 가치는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변동성이 확대

- 원/달러 : 올해초에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2월 이후 글로벌 달러 강세, 대북리스크 확대, 유로존 리스크 확산 등으로 상승
  - 키프러스 구제금융 신청, 이탈리아의 정국불안 등 유로존 리스크가 확대되고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외환 시장의 불안정
- 원/엔 : 아베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질적 완화정책 시행으로 엔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며 원/엔 환율은 1,10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가 커지며 상승세를 보임

#### < 원/달러 및 원/100엔 환율 현황 >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원/달러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21	1,112
원/100엔	1,391	1,428	1,437	1,441	1,346	1,413	1,176	1,148	1,100

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 환율 기준.

### ○ (전망) 2013년 하반기에 환율은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상승폭은 제한적

- 하반기에는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로 인한 국내 수출 부진 우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리 등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 하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 등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추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어서 2013년 연평균 1,105원을 기록할 전망

#### < 환율 전망 추이 >

(단위: 원)

	2011년	2012년	2013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원/달러	1,112	1,127	1,101	1,110	1,105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3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2013년 하반기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3.7	2.6	1.5	2.0	1.8	3.3	2.6
	민간소비(%)	2.4	1.2	2.2	1.7	1.9	2.3	2.1
	건설투자(%)	-4.7	-1.9	-2.4	-2.2	2.5	2.6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7.8	10.5	1.0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137	294	431	210	185	395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140	130	270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78	2,811	5,589
	(증가율, %)	19.0	0.5	-3.1	-1.3	1.0	3.0	2.0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638	2,681	5,319
	(증가율, %)	23.3	2.3	-4.0	-0.9	-0.1	4.9	3.5
소비자물가(평균, %)		4.0	2.7	1.6	2.2	1.3	1.8	1.6
실업률(평균, %)		3.4	3.5	2.9	3.2	3.4	3.2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1	1,110	1,105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1.9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3
일본	-0.6	-7.3	-2.8	10.4	0.6	2.0	5.3	-0.9	-3.5	1.0	1.6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0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6월 14일	6월 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14	2.41	0.27%p
	엔/달러	77.66	79.37	85.86	95.50	96.63	1.13¥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362	1.3284	-0.0078\$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070	14,758	-312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2,687	13,015	32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76	2.94	0.18%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26.5	1,145.7	19.2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889.2	1,850.5	-38.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6월 14일	6월 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7.82	95.05	-2.77\$
	Dubai	104.89	92.89	107.99	102.14	101.27	-0.87\$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6.18	279.57	-6.6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2.6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1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5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1.0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7	294	431	39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70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589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31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6	2.2	1.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5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105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